

## 양측성 성대 마비로 오인된 피열간 반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 용 식

내원 8개월 전 갑작스런 심장 마비로 응급소생술을 받고 삽관술과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치료 이후부터 애성과 운동시 호흡곤란, 취침시 천명을 주소로 방문한 환자입니다. 외래에서 시행한 굴곡내시경 검사상 양측성 반회신경 마비가 의심되었고 경부 CT에서도 원인이 될만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후두 근전도검사서 발성시 윤상갑상근의

움직임이 확인되어 윤상 피열부 고착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수 후두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피열간부에 작지만 짧고 단단한 반흔조직이 양측 피열부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수술로 제거하였고 수술 직후부터 환자는 애성과 호흡곤란이 사라졌다. 양측성 반회신경마비를 의심했던 환자가 반흔에 의한 피열부 고착증으로 판명된 경우로 증례보고하고자 한다.